

紹修書院 立地環境과 風水

박정해*

차례

- I. 序論
- II. 紹修書院의 立地環境과 風水認識
- III. 紹修書院 立地의 風水美學
- IV. 結論

【국문초록】

소수서원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서원으로써, 서원건설의 시초를 제공하였으며 서원건설의 본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서원입지선정과 공간구성의 기준점을 제시한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성격을 대변하는 문성공묘는 주세봉이 밝히고 있듯이, 安甯을 제사 지내는 목적을 앞에 두고 사당을 먼저 건립하고 있다. 부차적으로 강학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어 소수서원이 강학중심 서원이 아닌 제향중심의 서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혈처에 어떤 건축물이 입지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수서원은 풍수적 논리를 바탕으로 입지선정과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풍수의 한 유파를 차지하는 형국론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성을 가진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특징적인 형상을 소개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주산 靈龜峰은 거북이의 몸체에 해당하며, 앞으로 목을 쪽 뺀 머리 부분에 文成公 사당이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서원을 구성한 전통적인 입지론은 풍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수라는 특징요소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선현제향과 강학공간을 증시한 소수서원 입지의 사상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주제어

소수서원, 풍수미학, 형국론, 氣, 경관

I. 序論

우리나라에 性理學을 처음 도입한 安珦(1243-1306)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朱子學을 접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새로운 학문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신선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학문에 대한 갈구와 탐구로 구체화 된다. 특히, 공자와 맹자를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한 주자의 사상은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安珦은 이때 구한 저작들을 가지고 들어와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게 된다.

安珦을 제향하기 위해 건설한 소수서원은 주세붕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退溪는 풍기군수로 부임하자 소수서원의 賜額을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퇴계는 서원건립에 앞장서는 등 서원을 통한 학문탐구의 장이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수서원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서원으로써, 서원건설의 시초를 제공하였으며 서원건설의 본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입지선정의 기준점이 되면서 절터가 가진 장점을 활용코자 하는 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迎鳳書院과 道峰書院 그리고 玉山書院, 鷺江書院, 臨臯書院, 靑城書院 등¹⁾

1) 최완기, 『한국의 書院』 대원사, 2006, 22쪽.

도 사찰 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도 宋代의 4대 서원중에 하나인 嵩陽書院조차도 嵩陽寺라는 절터를 활용하고 있다.²⁾ 그러나 수요에 비해 좋은 입지의 부족은 廢寺 터만을 사용하는 극히 정당한 방법만이 있었는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서원들이 사찰 터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찰에서 강학을 시작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³⁾

소수서원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확보된 길지의 사찰 터는 다양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 입지관과 환경관을 통해 사상적 배경이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현들의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배치 그리고 입지선정의 교훈을 되새겨 보고, 현대 건축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서원에 대하여 입원생 관련 연구와⁴⁾ 시문관련 연구,⁵⁾ 교육관련 연구,⁶⁾ 건축구조관련 연구⁷⁾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전통적 입지

2) 박정혜, 「조선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12, 48쪽 참조

3) 『遜巖書院誌』에 따르면 遜巖書院은 金長生(1548-1631)의 부친인 金繼輝(1526-1582)가 세운 靜會堂으로 부터 비롯되는데, 이 靜會堂을 孤雲寺 경내에 편액을 걸고 강학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4)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 16·17세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38집, 2007.

송정숙, 「18·19세기 소수서원의 원생 연구 :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제2권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41집, 2009.

5) 권오경, 「紹修書院 景濂亭詩 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정화, 「소수서원(紹修書院) 관련(關聯) 시문(詩文)에 나타난 퇴계(退溪)의 선비정신 연구」 『공자학』 23권, 2012.

6)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역사교육』 제92집, 2004.

장극봉, 「紹修書院의 教育史的 意味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 정창원, 김일진, 「소수서원 강당의 변형에 대한 복원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11권 제2호, 1991.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풍수환경에 대한 연구⁸⁾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풍수적 환경론에 바탕을 둔 소수서원 입지의 특징에 대하여 形局論的 觀點과 自然과 氣 그리고 景觀的 觀點에서 각각의 풍수적 특징을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원은 조선 후기로 들어와 본질에서 이탈하여 학문탐구보다는 선현 제향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각 문중의 세력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유흥의 장으로 전락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⁹⁾ 반드시 철폐하여야 하는 암적인 존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서원의 모습은 지나침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침은 그에 부응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서원은 길지에 건설되어 다양한 장점을 간직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학교육을 통한 인격수양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가치성마저도 잊혀진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8) 임판빈, 「風水의 理氣論的 觀點에서 본 書院建築의 立地 및 配置에 관한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6.

박상구, 「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배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 영남지방의 전통서원 중 국가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9) 『英祖實錄』卷47, 14년 8월 9일(기축) 에 소개된 金昌翁의 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퇴계가 처음으로 백운서원 세우니	退陶初肇白雲祠
나라 살리고 백성 혁신할 길 여기 있다고 여겼는데	活國新民謂在斯
술 고기만 풍성하고 글 읽는 소리 끊겼으니	酒肉淋漓絃絕
도도한 온갖 폐단을 후세에 와서 알았네	滔滔百弊後人知

당시 서원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한 시로써,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II. 紹修書院의 立地環境과 風水認識

1. 紹修書院의 立地環境에 나타난 風水認識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풍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풍수가 비록 공교육의 영역 속에 편입되어 공론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빼놓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천문·지리·의약·복서는 모두 나라에서 폐할 수 없는 일이며, 또 儒者의 직분 안의 일”¹⁰⁾이라고 하여 풍수가 차지하는 의미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더 나아가 길지가 인재탄생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는 믿음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학자들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竹溪志』에 소개된 「有明朝鮮國謚文簡公安公墓碑銘」은 權近(1302-1409)이 찬한 글로서 山水 人才論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뚝 치솟은 산이	峯嶽高山
순흥을 둘러싸	于興是環
맑은 기운 응결하여	淑氣攸鍾
신령스러움이 내렸도다	迺降厥神
이에 대인을 낳으니	迺生碩人
온후하고 공손한 자질	溫溫其恭
높은 벼슬이 끊이지 않았고	位冠蟬聯
70세수를 누렸도다	壽享稀年
처음도 좋고 끝도 아름다우니	善始令終
훌륭한 자손들 이어져	有子有孫
가문에는 높은 벼슬 가득하도다	簪履盈門 ¹¹⁾ -이하 생략-

10) 『成宗實錄』卷174, 16년 1월 15일(무술) 4번째 기사

11) 周世鵬, 안정 역, 『竹溪志』「有明朝鮮國謚文簡公安公墓碑銘」, 소수박물관, 2009, 64쪽.

尹淮가 찬한 「有明朝鮮國推忠翊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興寧府院君良度公安公墓誌銘」에도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높은 소백산	小白之山
위로 푸른 하늘에 닿아있고	上磨蒼穹
기이한 기운이 응결하여	鍾奇孕秀
7상5공이 나왔도다	七相五公 ¹²⁾ -이하 생략-

주희가 찬한 「同安縣學經史閣上梁文」에는 “대동의 옛 땅이고 낙오의 이름난 고을 그 사이에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 공경의 자리에 늘어섰고 또 어진 선비들이 많아 성대하게 고을의 스승이 되었네. 비록 산천의 정기가 아름답기 때문이겠지만 실로 흠없이 교화를 입었기 때문”¹³⁾이라고 하여 산천의 정기와 인재의 탄생론에 동참하고 있다. 『紹修書院誌』 『紹修書院記』에도 “소백산 줄기가 뺏어내려 수려한 정기가 응결되어 한 분 대현이 태어났으니 바로 우리 文成公 安裕¹⁴⁾라고 하여 앞에서처럼 극히 인재 탄생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풍수를 활용한 터 선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비단 소수서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건립된 서원의 입지선정은 풍수논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同春堂集』에는 “하늘의 도움으로 누구에게 물어도 이론이 없을 만한, 흠이 전혀 없는 길지를 얻는다면 이보다 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¹⁵⁾라고 하여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周世鵬, 안정 역, ‘앞의 책’, 58쪽.
 13) 周世鵬, 안정 역, ‘앞의 책’, 186-188쪽. : 大同古地 駱奧名邦 間出巨人 鼎在公卿之位 亦多賢士 鬱爲閭里之師 雖山川之炳靈 乃教化之純被.
 14) 안정 역, 『紹修書院誌』 『紹修書院記』 소수박물관, 2007, 71쪽. : 蜿蟺扶輿 磅礪而鬱積 篤生賢人 曰我文成公安氏裕也.
 15) 『同春堂集』卷3 「疏筭」 請審定 山陵筭 : 賴天之靈 倘得純吉無疵之地 詢謀無有異同 則

조선의 유학자들은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표현을 통해 풍수와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선을 건국한 주체세력의 청사전에 고려의 악습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주체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가 망한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된 것이 불교와 풍수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풍수는 기필코 버려야만 하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려의 풍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訓要十條에 보이는바와 같이 裨補風水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비보풍수는 道誥國師(827-898)의 영향이 컸고 사찰건립 등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훈요십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왕건이 사찰濫設을 걱정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비보의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지나치게 남설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지나침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는데, 조선후기 서원 남설과 같이 심각한 민폐를 끼치게 되고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와 같이 풍수는 원인제공자로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곧 풍수를 터부시하는 결과를 양산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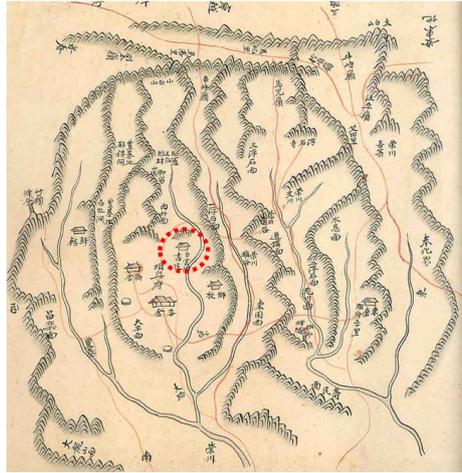
2. 紹修書院의 立地環境과 選定背景

『紹修書院誌』「白雲洞文成公開基祭后土文」에는 “사특한 터를 털어내고 새 사당을 세워 선사를 높이 모시려 하오니 밝은 신이시여 도와주소서.”¹⁶⁾ 라고 한다. 이는 새로운 길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사당을 건립하였다는

幸執大馬.

16) 안정 역, '앞의 책', 62쪽. : 滌邪墟開正基 立新廟尊先師 惟明神其右之.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불교의 폐사를 사특한 터로 유교사상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여, 불교에서 유교로 그 사상적 본질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소수서원을 건설한 유학자들의 인식속에는 풍수를 바탕으로 한 길지를 찾고자 하였고, 실제로 입지시켰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



〈그림 2〉 해동지도 중 순흥부
(출처 : 규장각)

『紹修書院誌』에는 소수서원의 입지에 대해 “竹溪가 그 왼쪽으로 돌아 흐르고 소백산이 오른쪽에 솟아 있으니, 구름·산·언덕·물이 정녕 廬山에 뒤지지 않는 곳”¹⁷⁾이라고 한다. 이는 소수서원이 여산의 白鹿洞書院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길지 중에 길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좌측에는 죽계가 오른쪽은 소백산’이라는 표현은 좌청룡 우백호로 대변되는 풍수 길지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풍수 길지론은 우리의 오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자리한 인식이 은연중에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葛庵集別集』「英山書院移建上梁文」에는 “버려진 현의 廳舍옆에 옛 학궁의 터를 구했는데, 형세와 주위가 유궁의 사묘를 세우기에 합당하였고, 경치가 맑고 그윽하여 여기에서 학문을 연마하기에 알맞았으나 버려져서 황무하고 차가운 안개만 자욱하게 낀

17) 안정 역, ‘앞의 책’, 63쪽. : 竹溪繞其左 小白確其右 雲山原水 誠不讓廬山

지 오래되었다. 죽은 나무와 풀을 베어 내고 썩은 흙을 걷어 내어 새롭게 하니, 늘어선 산봉우리가 기둥 앞을 빙 둘러쳐서 구름과 이내가 피었다 사라지고, 평평한 시내는 난간을 띠처럼 빙 둘러쳐서 물굽이에 물결이 출렁거렸다”¹⁸⁾고 하였다. 즉 ‘주위 형세’ 혹은 ‘늘어선 산봉우리가 기둥 앞을 빙 둘러쳐서’라는 말을 통해 좌청룡 우백호가 빙 둘러 환포한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평평한 시내는 난간을 띠처럼 빙 둘러쳐서’라는 말을 통해 물이 환포하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풍수적 표현은 『退溪集』「上沈方伯」에서도 소수서원을 가리켜 “마을은 그윽하고 깊으며 구름에 덮인 골짜기가 아늑합니다.”¹⁹⁾라고 하여 ‘그윽한 마을’과 ‘구름에 덮인 골짜기’는 곧 산과 물이 어우러진 길지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퇴계의 길지관은 고스란히 도산서당의 건립에도 반영되어 있다.

「陶山雜詠」에는 “영지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 ...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며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이 산을 빙 둘러싼 것 같다”²⁰⁾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 속에 풍수 길지가 갖는 특징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朱熹가 찬한 「衡州石鼓書院記」에도 “衡州의 石鼓山은 증상이 모이는 곳에 있어 강물이 휘감아 돌아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²¹⁾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18) 李玄逸, 『葛菴集別集』卷3 「上樑文」, 英山書院移建上梁文 : 茲焉廢縣之側 卜取故學之墟 體勢周遭 允合儒宮祠廟之攸置 境落清邃 端宜藏修鼓篋之所於 拋棄荒榛 鎖寒煙者久矣 芟闢菑翳 輦糞壤而新之 列岫當楹而拱環 雲嵐舒卷 平川繞檻而襟帶 灣漪淪漣.

19) 李滉, 『退溪集』卷9 「書」上沈方伯 : 洞府幽邃 雲壑窈窕.

20) 李滉, 『退溪集』卷3 「詩」陶山雜詠 :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 중략 -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

21) 周世鵬, 안경 역, 『앞의 책』, 175쪽. : 衡州石鼓山據烝湘之會 江流環帶 最爲一郡佳處.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원의 입지선정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물론 소수서원의 입지선정도 풍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미 길지로 인식되었던 고려시대의 宿水寺²²⁾라는 절터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절터를 활용한 것은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검증된 길지라는 장점이 있다.

둘째, 터를 닦는 토목공사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요인이다.

셋째, 인가와 떨어져 있어 공부하기 좋은 환경조건을 가졌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수서원을 건립한 주세붕은 어떤 이유에서 선정하게 되었는지 『竹溪誌』를 통해 제시한다.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먼저 폐지된 순흥부 성 남쪽 몇 리쯤에 있는 공의 고택을 찾았는데, 주춧돌이 다 파괴되고 잡초가 우거져 있으므로 깊은 감회에 젖고 한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다시 고적과 승경을 찾아 발길을 옮기다가 옛 순흥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숙수사 옛터를 찾아내었으니 그 절은 바로 前賢 魯珉의 詩에서,

싸늘한 산빛을 밀치며 스님은 지게문을 닫고 寒堆岳色僧扃戶
차가운 냇물소리 맑으며 나그네 누각에 오르네 冷踏溪聲客上樓

라고 읊었고, 安文正公의 詩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산머리에 쭈그리고 있는 모양 靈龜形勢縮山頭
그 아래 깊은 시냇가엔 백 척의 누각 우뚝하네 下有深溪百尺樓

22) 安廷球, 『梓鄉誌』「古蹟」편에는 숙수사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숙수사는 영귀산 아래에 있었다. 숙수루가 있었으니 바로 백운서원을 세운 곳이다.”(在靈龜山下有宿水樓 卽白雲書院所建之地)라고 밝히고 있다.

라고 읊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공이 어린 시절에 독서하던 곳이었으므로 주세붕은 감개무량하였다. 이에 목수를 부르고 물자를 모아 사당을 세우고 주서의 집에 소장된 화상을 모셔와 봉안하고 때맞추어 경건하게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사당 앞에 서원을 세워 인근 고을 선비들이 독서하는 장소로 만들었다.²³⁾

이상과 같이 주세붕은 『竹溪誌』를 통해 소수서원의 입지로 속수사를 선정한 배경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신령스러운 거북으로 대표되는 주산과 죽계천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길지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원을 건립한 목적은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서원의 입지선정배경과 건립목적이 분명해졌으며, 입지선정의 기준도 확인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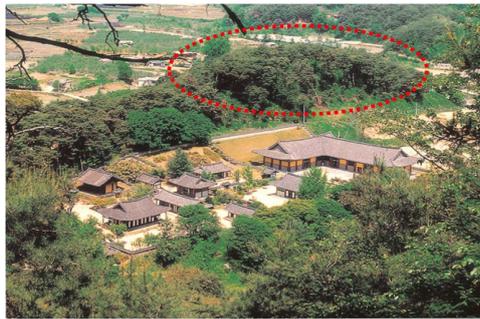
소수서원은 건립목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당을 먼저 건립하게 되는데, 사당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선점한다. 반면에 나중에 건설한 강학장소는 소수서원의 성격을 대변하기 보다는 부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중심성격을 가진 건물과 부수적 성격의 건물은 각기 다른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배치와 공간구성은 건립목적에 충실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졌고, 건물의 배치 또한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서원은 강학중심 서원이 아닌 제향중심의 서원이라는 점도 확인된 셈이다.

23) 周世鵬, 안정 역, '앞의 책', 42쪽 : 及守是郡 下車先訪晦軒舊里 其遺址在廢府城南數里許 破礎蓬蒿 滿目興懷 感慨不歇 杖屨逍遙 訪古探勝 由廢府北一牛鳴地 又得所謂宿水寺基 寺即前賢魯瑗所詠, … 是也 白雲常滿洞壑 故名其洞曰白雲 乃文成少年讀書處也 侯尤有感於心 遂倩工鳩材立廟 奉注書家藏畫像移安之 以時虔祀 廟前立書院 爲近邑諸生藏修之所.

Ⅲ. 紹修書院 立地의 風水美學

1. 紹修書院의 形局論에 나타난 風水

소수서원의 주산은 靈龜峰이다. 영귀봉은 소백산의 한줄기가 험하고 강한 기운을 완전히 털어내고 剝換된 모습이다. 또한, 그리 높지 않게 조그만 봉우리로 솟아올라 소수서원의 혈처에 정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영귀봉은 安文正公의 詩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산머리에 쭈그리고 있는 모양”²⁴⁾이라 읊은 것처럼 마치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림 3〉 소수서원 주산 靈龜峰
(출처 : 소수서원 홈페이지)



〈그림 4〉 소수서원 산도
(출처 : 박정혜(2012) 157쪽)

거북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십장생이라 하여 신령스러운 동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莊子』「逍遙遊」에는 “명령이라는 거북이는 5백년을 봄으로 하고, 5백년을 가을로 하며, 대춘이라는 나무는 8천년을 봄으로 하고, 8천년을 가을로 한다.”²⁵⁾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사는 거북이

24) 周世鵬, 안정 역, ‘앞의 책’, 42쪽. : 靈龜形勢縮山頭.

25) 『莊子』「逍遙遊」: 楚之南有冥靈者 以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 上古有大春者 以八千歲爲

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신령스러움을 간직한 동물이다. 그렇다면, 소수서원은 신령스러움과 장수를 의미하는 거북을 주산의 형상에 비유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장수에 대한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즉, 주산이 오랜 세월을 사는 거북의 형상이니만치, 자식에 해당하는 혈처에 입지한 서원은 그 보다 더 오랜 세월 번영하기를 바라는 맘이 반영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풍수의 한 유포를 형성한 형국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산 영귀봉은 거북이의 몸체에 해당한다. 반면에 혈처에 위치한 문성공묘는 거북이 목을 앞으로 쪽 뺀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이를 형국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의 형상과 앞쪽의 죽계수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는 혈명이 靈龜入水形이다. 즉, 신령스런 거북이 앞쪽의 죽계로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말이다.

둘째, 또 다른 혈명은 靈龜下山形이다. 신령스런 거북이가 산을 내려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동그란 봉우리의 안산을 거북이 알로 보아 靈龜抱卵形 혹은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는 靈龜出伏形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국론의 기본개념은 우주만물은 저마다 모양이 있고 形을 이루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氣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동식물을 표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Totem 신앙까지를 의인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형국론은 여기에서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또한 물형의 형상이 사람의 길흉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원시시대부터 유물신앙으로 존재했

春 八千歲爲秋.

26)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701쪽.

다. 풍수성립초기에는 이것이 개입되지 못하다가 발달과정에서 유물 신앙적 관념이 이입되었다. 만물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기의 차이 때문인 것이고, 이 기의象이 형으로 나타나는 만큼 물의元氣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고가 형국론으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²⁷⁾ 형국론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었다.

〈표 3〉五星과 形局의 관계

(출처: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1998, 182쪽)

구분	형상	형국	혈의 위치
木星	直狀	人形	心, 臍, 陰
火星	光狀	人形	心, 臍, 陰
土星	橫狀	獸形	-
金星	圓狀	禽形	翼, 窩, 冠
水星	曲狀	龍蛇形	鼻, 額, 耳, 腹, 頭, 尾

『雪心賦正解』에는 “木星과 火星은 주로 사람의 모양에, 金星은 날짐승을 대비시킨다. 혈을 취함에 있어서 사람은 심장과 배꼽과 음부에, 날짐승은 날개와 등우리와 벗에, 길짐승은 여러 짐승의 모양에, 그리고 龍蛇類는 코와 이마와 귀와 배와 머리와 꼬리에 빗대어 행한다.”²⁸⁾고 하였다. 이와 같이 『雪心賦正解』는 주산의 형



〈그림 5〉山圖
(출처: 『一指遊山錄』)

27)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0, 180쪽.

28) 『雪心賦正解』卷4 「穴論形異及沙水凶形應驗」: 如木火二星多結人形其穴取心臍陰 金星多結禽形其穴取翼窩冠星 土星多結獸形 水星多結龍蛇形 其穴取鼻額耳腹頭尾之類.

상과 혈의 결지 그리고 형국론의 특징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의 모양을 동물이나 새, 사람 등에 비유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혈처를 찾기 쉽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형국론은 풍수이론의 한 유파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다 진전된 논리발전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풍수의 극히 부분적인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어 ‘耳懸鈴鼻懸鈴’이라 하여 풍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부터 주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雪心賦』에서도 “호랑이는 사자와 비슷하고 기러기는 봉황과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만일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指鹿爲馬의 우를 범하는 꼴”²⁹⁾이라고 하여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雪心賦正解』에서 제시된 논리를 바탕으로 소수서원의 혈명을 유추해 보면, 소수서원의 주산인 영귀봉이 금성체이기 때문에 禽形으로 유추가능하다. 즉, 날짐승 형상에서 혈명을 찾아야 하는데, 둥그런 안산의 모습을 통해 유추 가능한 혈명은 金鷄抱卵形이다. 다른 모습도 유추 가능한데 주산을 새의 몸체라 하고 문성공묘를 향해 쪽 뺨은 능선을 새의 목과 머리라 한다면 平沙落雁形과 같이 새가 땅에 내려앉은 모습으로 유추가능하다. 그러나 주산의 이름인 靈龜峰을 모태로 도출한 靈龜入水形이나 靈龜下山形, 靈龜抱卵形, 靈龜出伏形 등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地名과 山 이름등도 穴名을 정하는데 중요한 활용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특징적인 형상을 기준으로 혈명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형국론의 혈명은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혈명이 나타난다. 따라서 형국론은 혈을 중심으로 어떤

29) 『雪心賦正解』卷4 「穴論形異及沙水凶形應驗」: 虎與獅貌相似 雁與鳳凰不殊一或少差 指鹿爲馬.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혈명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의 캐리커처 기법과는 일정부분 매치되고 있다.

2. 紹修書院의 환경과 自然 그리고 氣

풍수의 穴은 氣가 凝聚한 곳을 말하는 것으로, 氣는 풍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고 입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氣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그림 6〉 문성공묘

『海東雜錄』에는 “공간이 끝도 없고 가도 없듯 기 역시 가도 없고 끝도 없는 것(太虛說)”³⁰⁾이라고 氣를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管子』 「心術上」에는 氣를 “그 큼은 밖이 없고, 그 작음은 안이 없는 것”³¹⁾이라 하였고, 『內業』에는 “그 가늘음은 안이 없고, 그 큼은 밖이 없는 것”³²⁾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기는 우주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즉, 氣가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모든 생명의 존재 현상이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땅의 氣는 하늘에서 받는다. 이 氣가 산을 솟구쳐 올렸고 강물을 흐르게 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생성하고 소멸케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인간사회를 흥하게 하고

30) 權鼈, 『海東雜錄』卷4 「本朝」: 無窮無外 氣亦無窮無外(太虛說)

31) 『管子』 「心術上」: 其大無外 其小無內

32) 『管子』 「內業」: 其細無內 其大無外

망하게 하는 것도 이 氣의 작용이다.³³⁾

郭璞은 『錦囊經』 「氣感編」과 「因勢編」, 「貴穴編」에서 氣를 生氣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구성하면서, 生氣가 곧 풍수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리구성의 배경에는 풍수가 추구하는 궁극적 도달점에는 '乘生氣'라는 인식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하늘과 땅, 인간으로 대표되는 天地人 삼합사상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기로 대변되는 풍수논리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穴을 통해 실천되는 모습을 가진다. 혈이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곳으로 『地理啖蔗錄』에는 “천지의 기운이 어린 精이고, 산천자연의 妙³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이 농축된 혈처에는 소수서원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문성공묘가 자리한다.

혈은 기가 응결된 곳으로 바람으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이를 보호할 좌청룡과 우백호 그리고 안산은 그 필요성을 드러낸다. 특히, 좌청룡과 우백호는 혈을 감싸 안는 형상과 혈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를 요구받는다. 물은 기가 앞으로 진진하지 않고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포하는 형상뿐만 아니라 적당한 크기를 필요로 한다.

〈그림 7〉과 같이 죽계천은 둥그렇게 환포하는 모습을 통해 혈을 걸지



〈그림 7〉 소수서원의 입지환경
(출처 : 김은중(1994) 23쪽)

33) 崔於中, 『十勝地風水紀行』, 동학사, 1992, 27쪽.

34) [清] 袁守定, 『地理啖蔗錄』卷3 「穴法」, 北京 華齡出版社, 2007, 48쪽 : 夫穴者 天地氤氳之精 山川自然之妙.

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충족한다. 이때 혈은 오목한 모습으로 武曲星의 주산은 圓窩穴을 맺는다는 『龍水正經』의 논리와도 부합한다. 이를 『紹修書院誌』「白雲院壁次趙相國士秀韻」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영귀봉 높이 솟아 시내를 압도하고	靈龜高聳壓溪心
푸른 대나무 소나무 속에 원우 깊어라	翠竹蒼松院宇深
천년의 향기는 백록동을 이었고	千載馨芬承白鹿
사시사철 글 읽는 소리 선비들 다 모였네	四時絃誦集青襟
큰 규모로 창건함에 옛날 제도에 따랐으나	宏模展拓雖仍舊
성대한 덕으로 훈도함은 지금에 도움받네	盛德薰陶正賴今
검은 일산 당도하여 달 밝은 밤에	阜蓋翩然明月夜
옥계 물소리 속에 요금을 타네	玉溪聲裏撫瑤琴 ³⁵⁾

소나무와 죽계천 그리고 연못, 은행나무 등은 소수서원을 구성하는 자연요소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관의 구성요소이면서 그에 부합하는 氣를 발산한다.

3. 紹修書院의 風水景觀

景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각자의 영역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된다. 管子는 “무릇 세상만물은 음양이 발생해서 뒤섞이고 화합하면 나타난다.”³⁶⁾고 하여 세상만물의 이치를 음양에서 찾고 있다. 『淮南子』「泰族訓」에도 “신명이 교접하고 음양이 조화되면, 만물이 그곳에 자연히 태어나는 것”³⁷⁾이라고 하여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35) 安樞 역, '앞의 책', 556쪽.

36) 김필수 외 3인 옮김, 『관자』, 2006, 185쪽. : 凡萬物陰陽而生而參視.

37) 劉安, 안길환 역, 『淮南子』「泰族訓」 명문당, 2001, 282쪽. : 神明接 陰陽和 而萬物

있다. 특히, 물은 음양의 논리 속에서 陽이라는 하나의 軸을 형성하고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수 논리조차도 음양론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물은 혈을 결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의미를 가진다. 산은 움직임이 없어서 陰이라 하고 물은 움직임이 있어 陽이라 할 때 음양은 혈을 결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서원은 소백산과 죽계천이 완전히 환포하고 있어, 음양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룬 곳이라 할 수 있다. 풍수에서 물의 환포만큼이나 중시하는 것이 水口의 긴밀함 즉 관쇄여부이다. 이에 黃妙應은 『博山編』에서 “水口의 砂는 禍福과 가장 긴밀하다”³⁸⁾고 하여 물 흐름의 긴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은 ‘水管財物’이라 하여 재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靑鳥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산이 다가들고 물이 돌아들면 곧 귀하게 되고 재물도 풍족해 질 것이오, 산은 갇히고 물은 빠져나간다면 왕은 붙잡히고 제후는 망할 것이다. 산이 모여 쌓이고 물이 감돌아들면 자손이 번창 할 것이고 산이 달려 나가고 물이 세차게 흘러나가면 남의 종자가 되어 의지하여 생활하게 될 것이며, 물이 서쪽을 지나 동쪽으로 가면 재보가 무궁할 것이고, 세 번 휘돌고 네 번 내지르면 관직이 오를 것이며, 굽이굽이 굴곡함이 마치 물가에 모래 물결처럼 겹겹으로 서로 감싸 안으면 가장 높은 관직을 얻을 것이다.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백은 물을 만나면 머무는 것이니 길게 감돌아 싸안아 주는 곳에 갈무리해야 부귀의 땅이라 할 수 있다.³⁹⁾

生之.

38) 王乾, 『風水學概論』中國 西藏人民出版社, 2004, 319쪽.

39) 최창조 역, 『靑鳥經·錦囊經』민음사, 1993, 22-23쪽. : 山來水回 通貴豐財 山囚水流 虜王滅侯 山頓水曲 子孫千億 山走水直 從人寄食 水過西東 財寶無窮 三橫四直

더 나아가 만물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물이다. 물이 만든 최대의 걸작품은 생명을 만든 것이다.⁴⁰⁾ 그래서 『道德經』에는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을 향하여 흐를 뿐이다. 그러기에 무릇 도에 가장 가까운 것”⁴¹⁾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물이 있어야 생존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다. 물 없이는 처음부터 생명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을 생명수(*water of life*)라고도 하지만, 실로 ‘생명의 근원(*fons et origo*)’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을 만들고 생존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여유를 제공하는 경관을 구성한다. 경관은 물이 갖는 특징적인 요인들이 종합되어 다양한 요소로 작용한다. 소수서원은 죽계수의 맑은 물이 더할 수 없는 경관을 구성하는데,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 숲은 여기에 더해져 아름다운 경관을 완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혀 인공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아 자연과 하나 된 서원의 공간 구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조정이 찬한 「紹修書院記」에는 보다 구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뚝한 소백산	小白之山
높이 우리를 만하고	屹乎仰止
죽계의 물결	竹溪之水
맑고 아름다워라	樂乎清美
구름 깊고 골짜기 그윽한 곳	雲深壑幽

官職彌崇 九曲委蛇 準擬沙堤 重重交鎖 極品官資 氣乘風散 脈遇水止 藏隱蜿蜒 富貴之地.

40) 一丁, 雨露, 洪涌, 『中國古代風水與建築選址』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31쪽.

41) 老子, 오강남 역, 『道德經』, 현암사, 2008, 47쪽. :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찾으려 해도 자취가 없네	欲尋無跡
맑은 바람	習習清風
술술 불어오는데	于以來襲
선현의 향기 적막하니	寥寥餘響
뒤따라 이어야 하리라	薄言追之
우리 소자들이	吾黨小子
어찌 길이 사모하지 않으랴	胡不永思 ⁴²⁾

이 詩는 소백과 죽계가 어우러진 풍광을 노래하고, 이어 선현의 깊은 뜻을 이어갈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退溪도 「白雲洞書院 示諸生」이라는 시를 통해 소수서원의 풍광과 당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소백산 남쪽 옛날 순흥 고을	小白南墟古順興
죽계 찬 냇물 위에 흰 구름 떠다니네	竹溪寒瀉白雲層
인재 기르고 도 보위 한 공 더없이 우뚝하고	生材衛道功何遠
사당 세워 현인 높인 일 일찍이 없었지	立廟尊賢事匪曾
우러르고 사모하며 모여드는 인재들아	景仰自多來俊碩
학문을 닦는 것이 출세 위함 아니라네	藏修非爲慕鸞騰
고인은 볼 수 없어도 그 마음 느껴지네	古人不見心猶見
차고 맑은 연못 속에 휘영청 밝은 달빛	月照方塘冷欲冰 ⁴³⁾

그 외에도 소수서원과 죽계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시가 『紹修書院誌』와 『竹溪志』에 전하는데, 소백산 줄기는 영귀봉에 이르러 죽계와 만나며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서원주변의 빼어난 경승은 서원을 찾는 선비들이나 인근 유생들에게 휴식하며 정신을 맑게 해 주는 장소를 제공

42) 안정 역, '앞의 책', 71쪽.

43) 안정 역, '앞의 책', 510쪽.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⁴⁾ 또한 당시에 유행하던 주자의 武夷九曲을 본떠 竹溪九曲을 개창하고 있는데, 안정구가 쓴 『梓鄉誌』「形勝」편에 소개하고 있다.⁴⁵⁾ 이를 통해 소수서원의 경관미학은 완성되는 모습으로, 조선 유학자들의 경관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소수서원의 경관은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 학문적 성취와 함께 경관미학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退溪는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한적에 곳에 있어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교육적 성과가 크다”⁴⁶⁾고 하였다. 이는 조선서원건축 입지선정의 기준이 되었고 배경이 되었다.

IV. 結 論

周世鵬에 의해 건설된 소수서원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서원으로, 士林들에게 서원건설의 본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서원건설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시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수서원은 宿水寺라는 절터를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절터를 활용한 서원으로는 迎鳳書院과 道峰書院 그리고 玉山書院, 鷺江書院, 臨臯書院, 靑城書院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宋代 四

44)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2001, 156쪽.

45) 安廷球, 안정 역, 『梓鄉誌』「形勝」소수박물관, 2006, 50-51쪽. : 申侯弼夏嘗遊小白山時 於草菴金堂前 大書竹溪第一水石 刻之 仍倣武夷九曲 始刻一曲於盤石 遵溪而下 終刻九曲於梨店 其間纒五里許

46) 최완기, '앞의 책', 21쪽.

대서원중에 하나인 嵩陽書院조차도 嵩陽寺라는 절터를 활용하고 있다. 抑佛崇儒政策을 폈던 조선은 사찰과 승려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서원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힘의 논리로 빼앗는 강제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즉, 廢寺 터만을 사용하는 극히 정당한 방법만이 있었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소수서원을 건설한 周世鵬은 『紹修書院誌』와 『竹溪誌』에서 安珣의 祭享을 위해 소수서원을 건설하였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면에 講學하는 장소는 부차적인 공간에 해당되어, 소수서원은 강학중심 서원이 아닌 제향중심의 서원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安珣을 祭享한 文成公廟는 소수서원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풍수의 최종 목적에 해당하는 穴處에 문성공묘를 배치함으로써, 소수서원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원의 입지선정과 공간구성은 풍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선정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는 당시 유학자들도 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갖고자 하는 욕망도 컸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풍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인색했던 것은, 고려의 악습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주체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가 망한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된 것이 佛敎와 風水라는 인식을 가졌던 당시 士林들의 풍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풍수를 활용하고 풍수논리에 입각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당당히 내세우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풍수인식을 바탕으로 건설한 소수서원 입지에서 찾을 수 있는 풍수 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서원은 주산 靈龜峰을 중심으로 형국론을 구성한다. 즉, 주산 영귀봉은 거북이의 몸체에, 文成公廟는 거북의 머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수서원의 적당한 穴名으로 靈龜入水形과 靈龜下山形 그리고 靈龜抱卵形, 靈龜出伏形이 제시될 수 있다. 반면에 풍수서에 근거한 혈명으로는 金鷄抱卵形과 平沙落雁形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국론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혈명을 유추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가진다.

둘째, 風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氣라고 할 수 있다. 氣는 풍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고 입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氣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氣가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모든 생명의 존재 현상이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간사회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氣의 작용이라 보았다. 따라서 기가 응결한 혈처에 文成公廟를 배치함으로써 유학의 생명을 싹 띄우고자 하였다.

셋째, 소수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 속에 그 존재감을 드러낸 景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靈龜峯과 竹溪川 그리고 소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죽계천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든 걸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이 갖는 다양성을 『道德經』은 道의 경지로 끌어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만들었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생존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며, 물 없이는 처음부터 삶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은 실로 '생명의 근원(*fons et origo*)'이라 물을 생명수(*water of life*)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물은 소수서원의 자연과 하나 되

어 전혀 인공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 서원의 공간속에 빛을 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수서원입지의 풍수환경은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장 합리적인 입지환경을 구성하였다. 특히, 선현제향을 중시한 공간구성에는 조선유학이 성리학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탄생처가 되고자 하였던 바람이 반영되었다.

【 참고문헌 】

『葛菴集別集』

『管子』

『谿谷集』

『同春堂集』

『雪心賦正解』(卜應天古版本)

『成宗實錄』

『英祖實錄』

『莊子』

『退溪集』

『海東雜錄』

[清] 袁守定, 『地理啖蔗錄』, 北京 華齡出版社, 2007, 48쪽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56쪽.

김필수 외 3인 옮김, 『관자』 소나무, 2006, 185쪽.

老子, 오강남 역, 『道德經』 현암사, 2008, 47쪽.

박정혜, 「조선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8쪽.

안정 역, 『紹修書院誌』 소수박물관, 2007, 62쪽, 63쪽, 71쪽, 510쪽, 556쪽.

- 王乾, 『風水學概論』 中國 西藏人民出版社, 2004, 319쪽.
- 安廷球, 안정 역, 『梓鄉誌』 소수박물관, 2006, 50-51쪽.
- 劉安, 안길환 역, 『淮南子』 명문당, 2001, 282쪽.
- 一丁, 雨露, 洪涌, 『中國古代風水與建築選址』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31쪽.
-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701쪽.
- 周世鵬, 안정 역, 『竹溪志』 소수박물관, 2009, 42쪽, 58쪽, 64쪽, 129쪽, 175쪽, 186-188쪽.
- 崔於中, 『十勝地風水紀行』 동학사, 1992, 27쪽.
- 최완기, 『한국의 書院』 대원사, 2006, 21쪽, 22쪽.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0, 180쪽, 182쪽.
- 최창조 역, 『靑烏經·錦囊經』 민음사, 1993, 22-23쪽.
- 한국고전종합DB.

Abstract

Location Environment and Feng shui of So-su Seowon

Park, Jeong-Hae

So-su Seowon(紹修書院) that has been known as the first Seo-won was a model of Seowon architecture. Also it provided other Seowon to a standard of location selection and spacial composition. In Mun-sung-gong-myo(文成公廟) which represents characteristic of So-su Seowon, as Joo, Se-boong(周世鵬) clarified, shrine was constructed first with the purpose of ancestral rites for Ahn, Hyang(安珣). And a lecture hall was constructed subordinately. So So-su Seowon was not a lecture-centric Seowon but a rite-centric one. This has become very important meaning of directivity to determine what building is on Hyeol(穴) of Feng shui(風水).

In So-su Seowon there has location selection and spacial composition on the basis of Feng shui logic. And there has clear objective limitation from the view of locational condition theory(形勢論) of Feng shui. However, when see from the view of the shape features with that place, main mountain, which called Ju-san(主山), Yong-guee-bong has the shape of turtle body and the Mun-sung-gong temple is located on the part of turtle head. Traditional theory of location selection with which So-su Seowon was established has been organized with Feng shui feature. And shrine and lecture hall has also been built from the theory.

Key Word

So-su Seowon, Feng shui, Theory of locational condition, Qi, landscape

- 논문투고일 : 2013.12.19. 심사완료일 : 2014.2.10. 게재결정일 : 2014.2.14.